

세상을 바꾸는 애플의 창의·혁신을 말하다

잡스의 기준

켄코시엔다 지음·박세연 옮김

영감, 협력, 기능, 성실, 결단력, 취향, 공감.

위에 열거한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애플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핵심 요소다. 혹자는 이 핵심요소로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잡스의 위대한 7가지 원칙'이라고 말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1955~2011)의 원칙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한다. 일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1/4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 11이다.

올 상반기 발표한 아이폰 SE는 고급 사양과 저가 전략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애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대를 앞서갔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파리 등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 애플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했을까?

세상을 바꾸는 애플의 창의와 혁신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 발간됐다. 아이폰 등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온 전설의 개발자 켄코시엔다가 풀어낸 '잡스의 기준'은 애플 아이디어 창조론을 담고 있다.

베스트셀러 '오리농부' 저자인 애덤 그랜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혁신의 중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스티브 잡스의 황금기부터 시작됐는데, 저자는 개발 과정을 공개한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모든 제품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혁신이 애플을 견인했다는 것이 타당하다. 전설적 엔지니어로 알려진 저자는 그다지 뛰어난 인재는 아니었다.

수학적 재능도 없었고, 프로그래머로서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키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그가 좌절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것은 배움을 얻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동료와의 협력, 끊임없는 선택이 결국 아이폰 탄생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애플의 조직 문화를 '크리에이티브 셀렉션', 창조적 선택으로 정의한다. 직원들의 DNA에 새겨져 이어져 왔다는 얘기다. 그 크리에이티브 셀렉션이 앞에 열거한 영감, 협력, 기능, 성실, 결단력, 취향, 공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

고 상찬했다.

사실 애플의 제품은 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애플의 힘은 무엇에서 비롯됐을까. 바로 '소프트웨어'다.



애플의 업무방식은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셀렉션'으로 정의된다. 애플 로고인 한 입 베어먹은 모습의 사과.

다. 거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가능성 상상하기 '영감', 다른 사람과 일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장점 결합하기 '협력',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기능', 힘든 일도 마다 않고 쉽고 빠른 길에 의존하지 않기 '성실'이 그것이다.

또한 까다로운 결정을 내리고 미루지 않기 '결단력', 선택을 위한 세련된 감각을 개발하고 즐거움을 주는 통합된 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균형감 유지 '취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공감' 등이다.

저자는 애플의 업무 방식은 체크리스트

를 따르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일상적 업무인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나타낸다. 유래가 순간은 매우 드물었지만 부단히 노력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일곱 가지 핵심 요소라는 원자를 결합해 '분자'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영감과 결단력을 결합해 데모를 만들었다. 협력과 기능, 취향을 결합해 팀 동료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전달했다.

또한 성실과 공감을 끊임없이 결합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청림출판·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서울에 내 방 하나=최근 1인 가구 늘어나고 홀로살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립은 나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책은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독립해 자치하며 살아온 저자가 경험했던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현재의 삶을 그려나가는 에세이다. 저자는 홀로살기를 결심한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넨다. <해냄·1만5800원>

▲세어하우스 플라주=전과자만 입주할 수 있는 이상한 집 '플라주'. 이곳에 입주한 여섯 명의 어두운 과거와 베일에 싸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범죄 소설부터 호러, 청춘물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뽐내는 혼다 데쓰야의 장편 소설이다. 성격이나 직업을 알 수 없는 다섯 명의 감춰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갈등과 긴장도 높아진다. 이들은 세어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각자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비채·1만4000원>

▲이완반응=의학계에서 자가 치유 이론은 불필요한 미신으로 여겨져 왔다. 하버드대 교수 허버트 벤슨은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신과 신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고 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이완반응을 통해 인체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 명상을 통해 누구나 이완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창비·1만7000원>



▲마음 시론:너무 애쓰지 말고=독자들의 일상과 시를 웹툰으로 재해석해 만든 '마음 시론(詩+WEBTOON)'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시를 읽어 주는 카페를 차린 영길과 여기에서 알바를 하게 된 여고생 보혜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보혜와, 보혜에게 시를 빌려 조언을 해 주지만 자신의 인생 역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고민하는 영길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창비교육·1만5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쿵쿵 아파트=소음으로 가득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과정을 그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콕프라이즈 최우수작품상, 일본 디자인6 아시아 어워드 베스트 테크닉 부문 은상 등을 수상, 국내외에서 주목 받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도요일 다세대 주택'을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이다. 기타 연주 소리, 크고 작은 공사 소리 등 생활 소음을 다양한 의성어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창비·1만3000원>

▲오리 농부 디뎀이=눈에 풀어놓은 오리 한 마리는 제초제나 살충제 없이 벼를 튼튼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병충해가 도지기 전에 오리가 벌레와 잡초를 먹어주고, 벼를 툭툭 치고 다니면서 바로 세워주고, 오리의 배설물은 천연 거름이 되기 때문. 작가는 친환경 농사인 오리농법을 '오리농부 디뎀이'의 놀이를 통해 소개한다. <쉬어리더·1만3000원>

▲세종과 정조 왕중왕을 다룬다=책은 세종과 정조를 비교해 가며 성격과 시대 상황, 토론 스타일, 인재 등용 방식, 최대 업적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그들의 사소한 실수, 단점들까지 속속들이 파헤친다.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드 게임, 인터뷰, SNS, 100분 토론 등을 활용해 역사 이야기에 접근한다. 세종과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조선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선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 <푸른숲주니어·1만3800원>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미술사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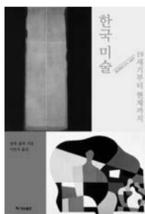
한국미술-19세기부터 현재까지

샬롯 홀릭 지음·이연식 옮김

익숙한 시선이 아닌, 전혀 다른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하게 된다. 내부자적 시각이 아닌, 외부자의 시각으로 연구와 관찰이 이어지면 기준 고정관념을 깨는 색다른 의견을 만날 수 있다. 100여년에 걸친 한국미술사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

샬롯 홀릭의 '한국미술-19세기부터 현재까지'는 '바깥의 시선'으로, 역사의 격변을 헤쳐 온 한국미술을 다채롭게 들여다본 책이다.

외국인이 방대한 한국미술사를 주제로 책을 썼다면 역시 저자를 눈여겨 볼 수밖에



레이터를 역임했고 지금은 영국 한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고려대 국제학계대학 프로그램에서도 한국미술사를 강의중이다.

저자는 '정체성'라는 키워드를 놓고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한국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구한말 수묵화, 초창기 유화 작품과 작가부터 현재의 양혜규, 임민욱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우른다. 책은 사진식 기록이 아닌 한국미술의 중요한 출발점과 새로운 방향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진, 예술가,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항도색 논쟁, 북한미술, 단색화를 둘러싼 논쟁 등도 가감없이 실고 있다.

1장 '근대 초기의 미술과 전시'에서는 조선이 파리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던 시점과 조선미술전람회의 설립 등에 대해 다루며 2장 '새로운 미술을 찾아서:일제 강점기의 화가들'은 미술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미술 교육제도와 당시 활동하던 작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3장 '미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형성'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4장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추상회화'에서는 추상표현주의와 1970년대를

지배한 단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의 미술과 정치'에서는 주류로 떠오른 민중미술과 대규모 문화프로젝트인 광주비엔날레,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설치 등에 대해 탐색하며 마지막 장 '형식과 내용을 논하다:1980년대와 2000년대의 미술'에서는 새로운 시각언어, 파격적인 기법, 도발적 퍼포먼스, 설치작업 등 변화무쌍한 한국미술계를 들여다본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내부 사진 등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다양한 사진과 한국미술사의 대표작을 망라한 도판과 전시 현장 사진들을 보는 즐거움도 큰 책이다.

책을 번역한 미술사가 이연식은 '한국 미술에 대한 호의적이고 열정적인 관찰자인' 저자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시선으로 한국미술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했다.

<재승출판·3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